

WTI, 약보합 불구 30달러 상회

석유공사, OPEC 감산 가능성에 관심집중 ... Dubai유는 25.45달러

석유시장이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약보합세를 보였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6월3일 현지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중질유(WTI) 현물가격은 배럴당 30.69달러로 전날보다 0.03달러 하락했다.

또 북해산 Brent유 현물가격도 27.38달러로 0.11달러 떨어졌다.

반면, 시장요인이 하루 늦게 반영되는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은 0.34달러 오른 25.45달러에 거래됐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6월11일 OPEC 총회에서의 감산 가능성과 미국의 휘발유 재고 수준 등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국제유가가 약보합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Chemical Journal 2003/06/05>